

IV

주요 통계

1 과학 기술

독일 기업의 혁신활동 현황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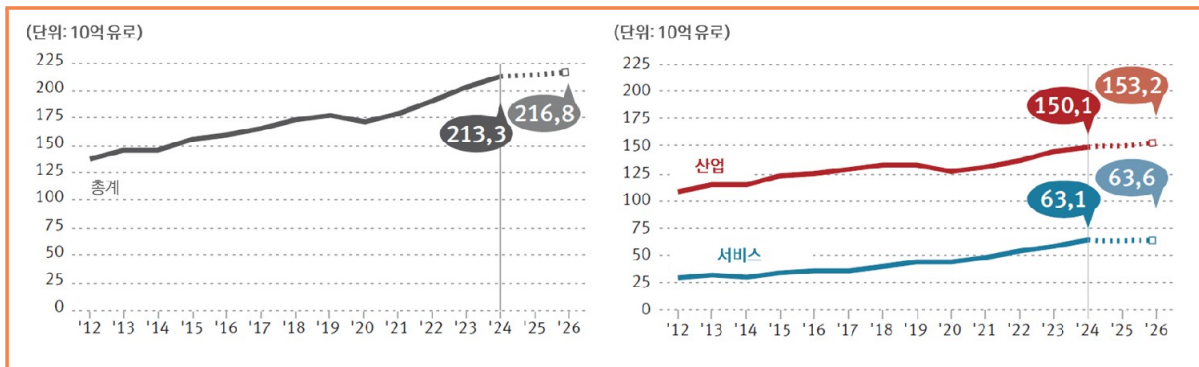
독일 경제연구소는 독일 연방 연구·기술·우주부(BMFT)의 의뢰로 응용사회과학연구소(infas)와 프라운호퍼 시스템·혁신연구소(ISI)와 함께 종업원 5명 이상의 약 36만 9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혁신 조사 2025」 결과 보고서를 발표('26.1.)

* Innovationserhebung 2025: Innovationsaktivitäten der deutschen Wirtschaft

⇒ 2024년 독일 기업의 혁신 지출은 총 2,133억 유로로 전년 대비 4.9% 증가했으며, 향후 수년간 혁신 투자 규모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
-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혁신 지출 증가세 확대 및 산업구조 변화 지속
 - 서비스 부문의 혁신 지출은 전년 대비 8.3% 증가해 제조업 증가율(3.5%)을 크게 상회하며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서비스 중심 혁신 확대 흐름을 반영
 - 혁신 활동의 중심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남
 - 다만 혁신 지출 규모 자체는 여전히 제조업이 1,501억 유로로 서비스 부문(631억 유로)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
 - 혁신 지출의 대부분은 종업원 250명 이상 대기업에서 발생했으며, 이들 기업의 지출은 1,784억 유로로 전년 대비 4.4% 증가
 - 중소기업(SME)의 혁신 지출은 349억 유로로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증가율은 7.1%로 대기업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임

〈 독일 기업의 부문별 혁신 지출액 변화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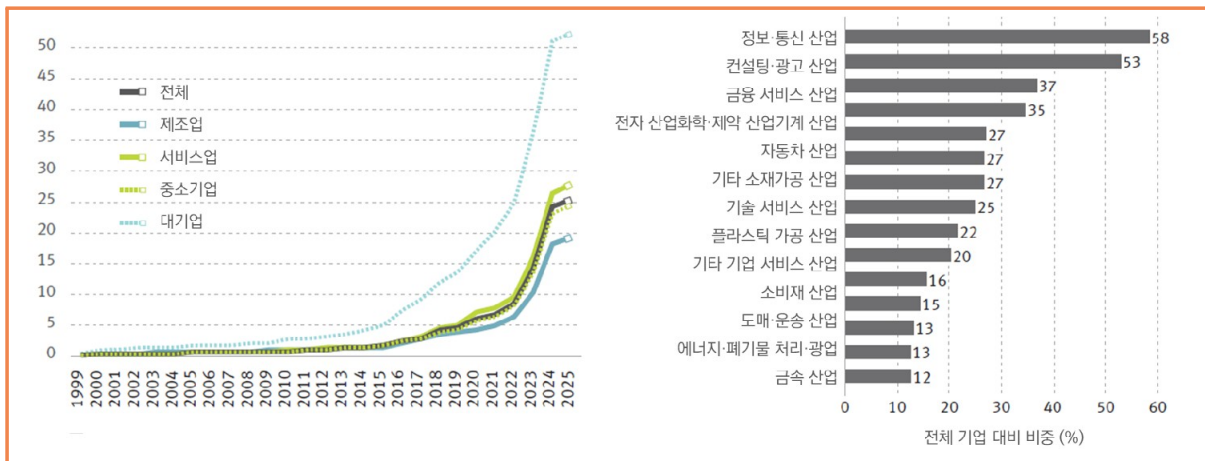


출처: 독일 경제연구소 (2026) Innovationsaktivitäten der deutschen Wirtschaft.



- 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(AI) 활용 빠르게 확산 및 산업별 적용 확대
 - 독일 기업의 AI 활용 비율은 2023년 약 14%에서 2024년 말 약 24%로 크게 증가하며 기업 활동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
 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AI 활용률이 28%로 제조업(19%)보다 높으며,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이 더 빠르게 진행
 -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2025년까지 AI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, 중소기업에서도 약 25% 수준까지 확대
 -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58%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며, 컨설팅 산업(53%), 금융서비스 산업(37%) 등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이 활발

〈 제품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AI 활용 현황 〉



출처: 독일 경제연구소 (2026) Innovationsaktivitäten der deutschen Wirtschaft.

출처: 독일 경제연구소 (2026.1.14.)

<https://www.zew.de/presse/pressearchiv/deutsche-innovationsausgaben-so-hoch-wie-nie>